

환경단체, 영산강 보 수문 개방 영향 조사

환경단체가 영산강 보(伏)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토양 오염도 추이 분석과 생태 조사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은 26일 영산강 죽산보·승촌보·나주 영산포 일대에서 수문 개방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항목은 수질·저질토 상태, 생태계 변화, 하구독·위락시설 영향 등이다.

조사에는 환경연합 활동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오준오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승촌보 우안 선착장 상·하류(보 기준)의 강물·저질토를 채취했다.

보 우안 상류 강기슭에서 채취한 강물의 용존산소(DO)량은 2.8ppm(4

보 구조물 위쪽 강물 용존산소량 4급 수문 개방돼 물 흐르는 쪽 강물은 1급

급수), 수문이 열려 물이 흐르는 하류의 용존산소량은 8.9ppm(1급수)으로 측정됐다.

이는 강 흐름이 빨라질수록 강물 속 모래·자갈 등이 굴러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되고, 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죽산보와 영산포의 강물·저질토 시료도 추가 채취한 뒤 민간 연구기관과 전남대 토양실 협실에 분석을 의뢰한다.

최종 분석 결과는 최소 2~3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 구조물이 존재해 바다에 쌓인 유기물로 퇴적층이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4대강 사업 당시 강 본류 바닥 굴착에 따른 물 나차 발생으로 폐사된 어류가 많은지 등도 조사했다.

보 개방 전인 지난 2016년 7월 수질을 조사한 결과와 이번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 환경당국과 보 처리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영산강은 수문 일부 개방 이후 물 흐름이 빨라지고 수위(승촌보 경우 7.5m~2.5m)가 낮아졌다.

이에 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에 모래톱이 생겨났고, 철새와 동물의 서식·막이활동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녹조도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은 "승촌보·죽산보 수문이 단계적으로 개방된 지난해 11월13일 이후 악취가 나는 펄들이 흘러 내려가고, 동물 발자국과 벌종위기종이 관찰되는 등 강 생태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수치보다 중요한 게 자연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승촌보·죽산보의 수문 개방 전후 변화를 살피고 수문 개방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수문 철거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했다가 단속에 적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원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32) 순경이 이날 오전 0시 27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자동차대리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대리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지만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순경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한 이후 징계할 방침이다.

산양삼 수백 뿌리 훔친 일당 검거

전북 진안경찰서는 아산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진안군 정천면의 한 아산에서 B(66·여)씨 소유 11년근 산양삼 500뿌리(200만원 상당)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약조를 깨다 알게 된 이들은 이곳에서 산양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손으로 캐낸 뒤 차량에 싣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양삼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된 B씨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틀렸었다.

A씨는 경찰에서 "산삼인 줄 알았다. 훔친 산양삼은 모두 먹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서 60대 여성 또 열사병으로 사망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에서 열사병(고체온증)으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A(67·여)씨가 몸이 아프다며 힘들어 하자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전 6시 19분께 숨졌다.

A씨는 병원 이송 이후 40도를 웃도는 고열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검안의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10분께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별관 건넌편 수영강변 산책로 옆 소공원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던 B(83·여)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열사병을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C(42)씨의 집에서 C씨가 폭염 속에서 이삿짐을 나른 이후 귀가해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C씨도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 22일 부산 서구의 한 주택 2층에서 90대 노인도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피부관리실서 30대 女 번개탄 피워 자살시도

2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2층 피부관리실 내에서 30대 여성인 A씨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던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해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가 2층 피부관리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

‘고3 시험지 유출 수사’

학부모 병원 압수수색

경찰, 대가성 입증 주력

고3 시험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고3 학생의 학부모 A(52·여)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련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시험지를 건넨 행정실장 B(58)씨에게 대가를 약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실장 B씨는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둔 상태로 퇴임 후 병원 근무 등을 약속했을 가능성과 본인 또는 주변인의 진료와 시술 등을 제공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의 컴퓨터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A씨와 행정실장 집,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시험지 유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학부모 A씨로부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준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집의 '죽보'인줄 알았다. 시험문제인 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일과 4일 중순께 행정실장 B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인호 기자



시원한 수박화채 한그릇. 대한적십자사 봉사처 영등포지구협의회 봉사단원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폭염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박화채를 그릇에 담고 있다.

‘민원 빚발’ 나주시 혁신도시 악취유발 시설 ‘강력 대응’

나주시가 혁신도시(빛가람동) 주민들의 해묵은 고충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설에 대해서 최고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올해 혁신도시 주변 1km내 축사 4곳에 대한 폐업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2곳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악취원으로 지목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엄격한 악취 배출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최대 악취원인 호혜원 축산단지를 폐업 시켰다. 하지만 매년 악취발생이 집중 되는 여름철만 되면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15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각종 축산악취는 혁신도시 시 반경 3km내에 소재한 축사, 퇴비사 등 41곳이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이들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심야·취약시간 대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근본적인 악취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악취확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계절·비파·기압'에

따라 인근 축사와 퇴비사에서 발생된 복합악취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법적 허용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 인근 퇴비공장과 돈사 각각 1곳이 악취 배출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악취방지법 제8조 2항'을 적용해 지난 25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해당 사업장 2곳은 지정고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해야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